

SPORTS '트레이드 대어' KIA 조상우, 철벽으로 거듭날까

2025년 4월 3일 목요일



5경기 3.2이닝 2홀드 3탈삼진 평균자책점 2.50
한화전 위기 대처 빛나... 불펜 약세 속 반등 기대

KIA타이거즈 투수 조상우가 철벽 불펜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조상우는 KIA 입단 전 통산 88세이브 54홀드를 기록한 키움하이로즈의 마무리 투수였다. 최고 구속 157km의 강속구를 주무기로 상대 타선을 압도. 2021년까지 키움의 뒷문을 지켰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맹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그는 2024년 1군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시속 150km 이상을 공을 뿌렸던 때에는 다르게 구속이 많이 줄었다. 이후 조금씩 적응해 가려던 차나 어깨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는 44경기 1패 6세이브 9홀드 평균자책점 3.18의 성적표로 조기에 시즌을 마감했다. KIA는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키움하이로즈에게 현금 10억원. 2026년 신인 1라운드·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조상우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실시한 것. 지난해 통합우승을 이끌었던 장현식의 빈자리를 채워줄 인제가 필요해서다.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준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 첫 실전에서는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비공식 데뷔전을 훌륭하게 마쳤다. 그러나 KBO 정규리그에 돌입하자 첫 4경기까지만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평균자책점 4.50 피안타율 0.455 피홈루율 0.538에 이르며 매 경기 주자를 내보내며 부진했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대전 한화전에서 0.2이닝 동안 2피안타 2실점(1자책점)을 하면서 팀이 역전패를 당했다. 평균 구속 역시 143km에 불과할 정도로 약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30일 경기에서는 달라졌다. 팀이 5-2로 리드하고 있던 7회말. 최지민이 상대 심우준에게 2루타. 황영목에게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2아웃 이후에는 상대 플로리얼 타석에서 3루 주자의 홈인을 막지 못하면서 2점차로 좁혀졌다. 이 상황에서 KIA는 최지민 대신 조상우를 마운드에 올렸다. 그동안 불안했던 조상우였지만 이날은 깔끔하

게 위기를 넘겼다. 상대 노시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뒤 체운성을 내야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았다. 그는 8회말에도 상대 선두타자 뜬공 이후 최인호와 문현빈을 각각 삼진과 땅볼로 잡아내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기록, 홀드를 따냈다. KIA는 이날 조상우의 활약에 힘입어 5-3 승리를 지켜냈다. 2일 경기 전 기준 KIA는 불펜진 약세 속에 리그 7위에 머물러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해 통합우승팀이라고 보기에 아쉬운 성적이다. 특히 KIA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무려 8.07이다. NC다이노스(8.13) 다음으로 압도적인 수치다. 그간 필승조로 활약했던 전상현은 지난 28일 한화전 3실점 이후 평균자책점이 10.13으로 뛰어올랐다. 이외에 이준영(6.75), 황동하(6.43), 광도규·임기영(이상 27.00) 등이 컨디션 난조에 휘말렸다. 마무리 정해영(9.00)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최지민이 평균자책점 2.45로 버티고 있지만, 믿고 보기에 불안한 요소가 많다. 결국 팀 불펜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베테랑 조상우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조상우가 팀 승리를 지키는 필승조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총력'

상반기 안전관리 교육... 재난사고 대응 관리 등 초점

전남도체육회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라남도 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클럽, 유관기관 등의 행사 주최자 및 관리책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를 준수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을 통해 체육관계자 및 행사 담당자들의 안전 관리 능력이 향상돼 전남도를 비롯한 각종 행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포츠안전협회 소속의 류승민, 김진훈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교육에서는 스포츠 행사 주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과 운영,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점검 실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외에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대처 방안, 관련 법규 및 규정 이해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주요 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남도체육회가 타시·도체육회 대비,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이번 교육을 통해 체육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무엇보다도 모든 체육행사에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문화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주형



김사우



이경훈

'마스터스 전초전' PGA 텍사스오픈 내일 개막

김주형·김사우·이경훈 출전... LIV 골프는 마이애미서 이어져

'마스터스 전초전'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총상금 950만달러)이 한국시간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TPC 샌안토니오 오크 코스(파72·7438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PGA 투어 대회로,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랭킹 '톱10' 중 도전장을 낸 선수는 5위 루드비히 오베리(스웨덴)와 6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뿐이다. 오베리는 지난 2월 PGA 투어 특급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으나 지난 달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첫 탈락하는 등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인다. 마쓰야마도 시즌 개막전인 더 센트럴에서 우승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 역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컷오프됐다. 2021년 마스터스 우승자인 마쓰야마는 이번 대

회를 통해 부진 탈출을 노린다. 두 선수 외에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 중에선 11위 토미 플라이트우드(잉글랜드), 14위 키건 브래들리, 15위 패트리 캔들레이(이상 미국) 가 눈에 띈다. 디펜딩 챔피언 약사이 바티아(미국·23위)와 텍사스오픈과 끈끈한 인연을 가진 코리 코너스(캐나다·21위)도 출전한다. 코너스는 통산 두 차례 우승을 모두 텍사스오픈(2019년, 2023년)에서 거뒀다. PGA 투어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파워랭킹에서 코너스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다. PGA 투어는 "코너스가 이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많은 데다 최근 3개 대회에서 3위-공동 6위-공동 8위에 오르는 등 안정적인 기량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선수는 김사우, 김주형, 이경훈 3명이 출전한다. 통산 4승을 거둔 김사우는 올 시즌 단 한 번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김주형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월 PGA 투어 특급 지정대회(시그니처 이벤트)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로 선전했으나 이 대회를 제외하면 30위권 내에 진입한 적이 없다. 그는 이번 대회를 뒀 뒤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이경훈도 최근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올 시즌 출전한 10개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컷 탈락하거나 기권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발 골프클럽(파72·7701야드)에서는 LIV 골프가 벌어진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엔 총 54명의 선수가 총상금 2500만달러를 놓고 실력을 겨룬다. LIV 골프에서 뛰는 유일한 한국 선수는 장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지난해 KLPGA 투어를 평정한 장유빈은 올 시즌 LIV 골프에서 해외 무대의 높은 벽을 체험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공동 49위, 두 번째 대회인 호주대회에서 공동 23위에 그쳤다. LIV 골프 개인 랭킹 46위를 달리는 장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첫 톱10 진입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탁구 WTT 첸나이 우승 오준성, 세계랭킹 20위

여자부 '상위 랭커 킬러' 김나영도 31위로 15계단 수직 상승

한국 남자 탁구 기대주 오준성(19·수성 방송통신고·사진)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 활약에 힘입어 세계랭킹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오준성은 2일 국제탁구연맹(ITTF)이 공개한 4월 세계랭킹에서 20위로 종전 36위보다 16계단이 나 뛰어올랐다. 오준성은 지난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WTT 스타 컨텐더 첸나이 2025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선수 중에선 간판 장우진(세아·세계 12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오상은 탁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오준성은 2023년 종합선수권 때 역대 최연소(17세)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다. 특히 오준성은 작년 10월 아시아선수권 때 당시 세계 1위였던 중국의 왕추진을 남자단식 8강에서 3-1로 꺾는 '녹색 테이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준성은 아버지가 미래에셋증권 감독을 그만두면서 함께 팀을 떠나 새로운 동지를 찾는 중이다. 여자 대들보 김나영(20·포스코인터내셔널)도 WTT 첸나이 대회 활약을 앞세워 세계랭킹이 종전 46위에서 31위로 15계단 점프했다. 연합뉴스



김나영은 첸나이 대회 여자단식 32강에서 세계 36위 후호이켄(홍콩)을 3-2, 16강에서 세계 8위 오도 사츠키(일본)를 3-1, 8강에서 세계 15위 아드리아나 디아스(푸에르토리코)를 3-0으로 꺾어 '상위 랭커 킬러'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남녀 에이스인 장우진과 신유빈(대한항공)은 세계랭킹 12위, 10위로 변함이 없었다. 연합뉴스

'3부 반란' 빌레펠트, 레버쿠젠 꺾고 독일컵 첫 결승

3부 이하 팀 최초 단일 시즌 4경기 연속 1부 팀 제압 '돌풍'

독일 3부 리그 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가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의 대회 2연패 꿈을 깨뜨리고 독일축구협회컵(DFB 포칼)에서 사상 처음 결승에 오르며 돌풍을 이어갔다. 빌레펠트는 2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빌레펠트의 슈코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DFB 포칼 준결승 홈경기에서 레버쿠젠에 2-1로 역전승했다. 2023-2024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패 우승'(28승 6무)을 달성한

데 이어 DFB 포칼에서도 31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라 시즌 2관왕을 차지한 레버쿠젠은 이번 대회 2연패를 노리던 강호다. 반면 빌레펠트는 앞서 이 대회에서 네 차례 준결승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다던 팀이다. 올 시즌에는 독일 3부 리그에서 20개 팀 중 4위에 올라 있다. 1905년 창단한 빌레펠트는 2002 한일 월드컵이 끝난 뒤 치두리(화성FC 감독)가 레버쿠젠과 입단 계약을 하자마자 임대돼 한 시즌을 뛰었던 팀이라

국내 팬들에게도 아주 낯설지는 않다. 당시에는 분데스리가 소속이었다. 2부 리그에 속해있던 2006년 초에는 류승우가 역시 레버쿠젠에서 임대돼 전여 시즌을 보낸 바 있다. 빌레펠트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2부 강팀 하노버를 2-0으로 제압하더니 1부 팀인 우니온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베르더 브레멘을 차례로 꺾은 뒤 레버쿠젠마저 무릎 꿇리고 사상 처음 결승에 오르는 드라마를 써 내려갔다. 축구 통계 전문 유포에 따르면 DFB 포칼에서 한 시즌에 3부 이하 팀이 4경기 연속 1부 팀을 꺾은 것은 빌레펠트가 처음이다. 이제 빌레펠트는 구단 사상 최초는 물론 3부 클럽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DFB 포칼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